

# “예술인 권리 확대, 광주 맞춤 정책 필요”



최근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집담회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문화재단 주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집담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구제 제도 마련도 시급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법률 규정이 의지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발휘해 광주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예술인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주장은 정운희 작가(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TF 민간위원)가 최근 열린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집담회에서 제기했다.

이번 집담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민관 협의 TF 주관으로 동구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5층 탈탈라움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부터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술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로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심지어 문화재단이 전업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쓸쓸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원금 안내문이 게재

되자마자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려 재단 서버가 한동안 다운된 것이다.

또한 2020년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단에서 발생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를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안전사고뿐 아니라 지난 6월 공론화된 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 등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 권리를 보장할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맞물려 지난 2021년 7월 김나운 의원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시 의회와 광주시, 문화기관,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현재 조례를 대표 발의할 김나운 광주시의회의원과 시 문화체육실, 문화재단, 현장 예술인, 시민활동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가 운영 중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운희 작가는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해결의 책임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시적

인 해결과정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다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다.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노리 내에 예술현장의 참여권리가 녹아들기를 바란다”며 “만약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법률 규정에만 근거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는 광주시 스스로 자치법규가 필요 없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시장의 책무,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배우 장도국 씨는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내용’의 발표문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책임자가 시장임을 밝혔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술인의 참여와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 시책 마련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노동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 평등한 창작환경 조성 위해 예술인 권인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민주노동법률원 노무사 홍관희 씨는 “예술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성도 있다”며 “예술인들의 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성평등 라운드테이블의 진행을 맡은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광주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이 ‘이기는 목소리’라고 강조하면서 ‘예술계에 만연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과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모인 의견은 12월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공연계 ‘애도의 시간’

시립합창단·발레단 공연 취소... 문예회관, 오늘부터 환불

이태원 헬리원 검사 여파로 광주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각종 공연들이 취소되며 광주 공연계가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발레단의 공연 취소를 알렸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은 앙코르 공연 형식으로 4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다. 공연은 지난 8월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이를 관람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무대를 통해 광주연시안요들클럽과 광주시립합창단의 연합합창이 선보여질 계획이었다.

3일부터 5일까지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될 광주 시립발레단 ‘발레살롱콘서트’의 ‘빛과 그림자 속의 발레’도 선보이지 못하게 됐다. 키릴자레스키 광주시립발레단 부예술감독의 러시아 전통 발레 수업 장면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였지만 공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립합창단과 발레단의 공연 취소로 문화예술회관은 사전 예매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개별적으로 환불처리 및 환불계좌 등록 요청 중에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서울 가는 5·18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 놀이패 신명 14일 국립극장

올해 창단 40돌을 맞는 놀이패 신명의 우수 레퍼토리아 5·18을 다룬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의 서울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4일 국립극장 하늬극장.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가 된 이와 그 가족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창작됐고, 소리춤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지난 2010년 창작 초연 후 꾸준히 무대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다. 특히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기획사업 일환으로 타 지역 진출 지원을 받았다.

작품의 기본 토대는 국가 폭력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무겁고 딱딱하지 않고 웃음과 해학이 담겨 있다. 지난 시대의 스타일로 분장한 유명 배우들의 역할은 향수를 자극한다.

줄거리는 높은 무당 박조금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귀환을 끌고 돌아오는 박조금 주변에 80년 5·18 당시 암매장 당한 뒤 이승을 떠도는 여학생, 시민군의 영혼들이 모여든다. 이승을 저승으로 데려가야 하는 저승사자는 희유와 협박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전 좌석 무료이며 국립극장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2-670-746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라 우수영 들소리’ 한국민속예술제 대상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전라우수영문화예술진흥회와 서대구중학교 비산농악반이 각각 일반부와 청소년부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31일 밝혔다.

지난 28-30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한국민속예술제에는 30개 단체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라우수영문예진흥회는 해남 지역의 논밭에서 들일을 할 때 남자들이 불렀던 농요인 ‘전라우수영들소리’를, 서대구중 비산농악반은 대구 비산동 일대에서 자생한 농악인 ‘비산농악’을 선보여 대상을 차지했다.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의 공연 영상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악방송에서 하루에 한 편씩 방송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공>

## 광주형 포장·인쇄 플랫폼 ‘활짝패키지’ 홍보

광주디자인진흥원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광주디자인진흥원(송진희 원장)이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다.

진흥원은 이번 산업전에서 포장·인쇄 제조기업과 포장디자인 전문기업을 소비자에게 매칭해주고 디자인부터 제작(배송)까지 원스톱 주문이 가능한 광주형 포장·인쇄 통합 플랫폼 ‘활짝패키지(www.hjppack.co.kr)’를 집중홍보한다.

활짝패키지는 비닐, 종이박스, 트레이, 스티커·라벨, 포장 기성품, 포장디자인, 기타인쇄물 등 7개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조기술, 최신 인쇄설비를 보유한 포장·인쇄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협업했다. 진흥원은 전시간 동안 식품 관련 기업들의 포장 패키지 및 디자인 관련 상담과 함께 키오스크를 활용, 플랫폼 이용 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